

남북, 철도·경협·이산상봉 논의할 듯

대표단으로 본 고위급회담 의제

6·15 행사·개성 연락사무소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박차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할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우리 측 대표단의 명단을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측이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구성된 대표단 명단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빠지고 안문현 심의관이 들어간 것이다.

이 당국자는 류광수 차장이 교체대표로 고위급회담에 참여한다면서 "산림협력 관련 논의시 안문현 심의관 대신 우리측 대표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측이 대표단을 5명으로 꾸릴 것으로 예상돼 우리도 대표단을 5명으로 맞추기 위해 교체대표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도 이날 명단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통보한 명단은 지난 5월 15일 통보한 명단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16일로 합의된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대표단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을 대표단으로 통보한 바 있다.

대표단 명단으로 미뤄볼 때 남북은 철도 연결을 비롯한 경제협력과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6·15 남북공동행사,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아시안게임 공동참

가 등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여러 사항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의제는 후속 회담 일정이다.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군사 긴장완화를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등의 일정이 이번에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협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남북 철도연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부는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내세우며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박명철 민경협 부위원장의 등장은 더 나아가 남북경협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경협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해 왔다.

다만 경협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북측도 잘 알고 있어 이번에도 세부사업에 합의하기보다는 본격적인 경협 시대에 대비한 준비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노태강 2차관은 북측 원길우 부상과 8월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접촉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은 김남중 실장과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둘은 6·15 남북공동행사,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서도 의논할 것으로 여겨진다.

/임동욱 기자 tuim@연남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9일 오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5월 9일 방북한 폼페이오(왼쪽) 미 국무장관을 환영하는 김 부위원장. /연합뉴스

남북 고위급회담 논의 의제별 양측 대표

남한	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수석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김윤혁 철도성 부상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원길우 체육성 부상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연남뉴스 ※ 북한은 지난 16일 교환 명단 기준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자금 보조·실직자 고용안정자금 등 지원

조선업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서남권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목포·영암·해남과 함께 울산 동구, 경남 거제와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특정지역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경우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일시적으로 특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22일 제정된 이래 지난 4월5일 전북 군산시가 처음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고 조선업 회복 지원에 따라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

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기존 조선업지역에 따른 지원 외에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과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앞서 전남도는 오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이들 3개 지역을 묶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4월23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을 꾸려 현지답사를 마쳤고,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극복위원회'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 지정을 결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상호증권업 현황



◆협력업체 현황



전남개발공사 친환경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정부 공모 선정

전남개발공사의 친환경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모한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R&D) 과제 중 100MW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 자원 평가 기술 개발 분야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검토하는 대규모 계획 입지와는 별개로 지역에서 갈등을 빚는 해상풍력 사업에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해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국비, 전남도와 영광군 예산을 포함해 사업비는 40억원이다.

대학, 에너지 공기업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개발공사가 주관한다.

고광원 전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해상풍력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의미가 있다"며 "2025년까지 태양광 1GW, 해상풍력 2GW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미, 북미 대화 진전에 추가 대북제재 연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미국 정부가 무산될 뻔한 북미정상회담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연기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29일 수십건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추가 제재는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 추방과 제재품목의 불법이송 차단

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당국자는 WSJ에 "추가로 검토했던 대북제재는 거의 36건에 달한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잇따라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경고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자 북한을 압박하는 추가 제재를 준비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의회 청문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前 미·일 정상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일 정상상이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긴밀한 조율·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일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 관련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체를 달

성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미·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중순 플로리다의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한달여 만이다.

미·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 및 형태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6월 8~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기간에 열릴 수도 있으나, 아베 총리가 이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길에 워싱턴DC에 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캡슐씩~ 하루 2캡슐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의회호 : 21719239

NAVER 유한바이오 백세생활건강 · 검색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금융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